

K-ESG 대응 실무 가이드

1) K-ESG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

- **K-ESG** 가이드라인은 국내 기업이 ESG 수준을 자가진단하고 개선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측에서 마련한 국내 맞춤형 **ESG** 지표 체계입니다. **K-ESG** 포털은 4개 영역(정보공시 **P** / 환경 **E** / 사회 **S** / 지배구조 **G**) 기반의 진단 항목 체계를 제공합니다.
 - 문서 버전에 따라 ‘핵심 **61**개(**4**영역·**27**범주·**61**진단항목)’로 소개되는 버전이 있고, 포털 진단체계 화면에서는 **4**영역·**29**범주·**69**개 기본진단 항목 구성으로도 안내됩니다.
 - 실무 권장: **61**개(핵심 공통)로 베이스라인을 만들고, 필요 시 **69**개(확장 항목 포함)까지 확장하는 방식이 가장 안정적입니다.
-

2) Impact “높음”인 이유(국내 기업)

1. 국내 공시 의무화 로드맵과 정합: 금융당국이 **ESG** 공시 로드맵(의견수렴안→확정 절차)을 진행 중이며, 제도 확정 시 공시 규정 개정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준비가 필요합니다.
 2. 정부 지원사업/대외 요구 대응의 공통언어: **K-ESG** 및 관련 지표를 활용해 진단·개선하는 정부 지원(컨설팅 등) 사업이 운영되고 있어, 자가진단 결과와 개선계획은 참여/평가/성과관리에서 실질적 효용이 큼니다.
-

3) Action: 대응 필요 — 운영 목표

Core Action

K-ESG 지표로 자가진단(현 수준·증빙 확보) → 취약 항목을 우선순위로 개선(프로세스/데이터/통제 구축) → 대외공시·지원사업·평가대응에 재사용 가능한 체계로 고도화

4) K-ESG 자가진단 및 취약 항목 개선 프로세스(실행형)

STEP 1. 진단 범위·조직·책임(RACI) 확정 (1~2주)

- 진단 범위: 전사/사업부/사업장, 연결·별도 기준, 데이터 커버리지
- 책임체계(RACI):
 - P(정보공시): IR/재무/ESG
 - E(환경): 환경안전/생산/에너지
 - S(사회): 인사/구매(협력사)/안전보건/정보보호
 - G(지배구조): 기획/법무/준법/이사회 사무국

산출물: 진단 범위 선언서 + RACI + 증빙 저장소(폴더/권한)

STEP 2. K-ESG 지표 기반 베이스라인 자가진단 (2~4주)

- 권장 베이스: 핵심 61개 진단항목으로 1차 진단
- 확장 필요 시: 포털의 69개 기본진단 항목까지 확대
- 각 항목은 “답변”이 아니라 증빙(근거자료) 기반으로 채점/판정
 - 예: P 영역은 공시 방식/주기/범위/핵심 KPI/검증 여부 등을 포함
 - E 영역은 온실가스(Scope1&2, Scope3), 검증, 에너지/재생에너지 비율, 용수, 폐기물, 오염물질, 기후변화 거버넌스 등 항목이 포함

산출물: K-ESG 자가진단 결과표(점수/상·중·하) + 항목별 증빙 리스트

STEP 3. 취약 항목 “우선순위” 산정 (1주)

취약 항목을 모두 개선하려 하지 말고, 아래 3축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.

1. 규제/공시 리스크 축: 공시 로드맵/대외요구와 직접 연결되는 항목
2. 사업 영향 축: 매출/납품/금융(평가·조달) 영향이 큰 항목
3. 개선 난이도 축: 데이터가 이미 있거나 프로세스만 보완하면 되는 “퀵윈(quick win)” 여부

산출물: 개선 우선순위 매트릭스(Top 10) + 1년 개선 로드맵

STEP 4. 취약 항목 개선 설계(정책→프로세스→지표→통제) (4~8주)

항목별 개선은 아래 “표준 패턴”으로 설계하면 재사용성이 높습니다.

- **Policy:** 선언/원칙(예: 기후·인권·윤리·정보보호 등)
- **Process:** 운영 절차(RACI, 주기, 승인, 예외처리)
- **KPI:** K-ESG 지표 산식과 동일한 내부 KPI 정의(단위/범위/데이터 원천)
- **Control/Evidence:** 증빙(로그/대장/검증)과 변경관리(버전)

정부 지원사업/대외 진단은 “있다/없다”보다 운영 흔적(증빙)과 재현성을 봅니다.

산출물: 항목별 SOP + KPI 정의서 + 증빙 바인더(감사 대응 폴더)

STEP 5. 분기 단위 재진단 및 개선 효과 측정(상시)

- 분기마다 “진단→개선→재진단”을 돌려 점수 상승/리스크 감소를 수치화
- 공시 대비: P 영역을 우선 안정화(공시 범위·주기·검증 체계)

산출물: 분기 ESG 운영 리포트 + 개선 CAPA 로그

STEP 6. 정부 지원사업/외부평가 대응 패키지화(선택)

- 정부 지원사업, 고객사 ESG 요구, 금융기관 질의에 바로 제출 가능한 패키지 구성
- K-ESG 기반 진단·개선을 수행하는 지원사업 공고/안내에서 K-ESG 활용이 명시됩니다.

산출물: 대외 제출용 ESG 팩(요약본+근거목록+핵심 KPI)

5) 최소 체크리스트(바로 점검용)

- K-ESG 61개 핵심 항목으로 베이스라인 진단을 완료했다.
- 각 항목에 대해 “답변”이 아니라 증빙 위치/책임자/갱신주기가 정리돼 있다.
- 취약 항목 Top 10에 대해 SOP+KPI+증빙까지 연결된 개선계획이 있다.
- 공시 로드맵 변동을 모니터링하고, P(정보공시) 영역을 우선 안정화한다.
- 필요 시 정부 지원사업(컨설팅 등) 참여를 위해 진단결과·개선계획을 패키지화할 수 있다.